



NEWS LETTER

2020년 10월 26일 Vol. 387

대한불교조계종 제화사, 봉은사 코로나19 극복 의료진을 위한 ‘희망 도시락’ 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충남 천안 제화사와 서울 강남 소재 봉은사는 지난 10월 19일과 2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사찰음식도시락 각 200개를 전달했다. 봉은사 사회국장 라훔 스님은 “마음과 정성으로 만든 사찰음식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전달돼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제화사 주지 백거 스님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작은 도시락 하나가 큰 힘이 되진 않겠지만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준비했으니 건강한 사찰 도시락 드시고 의료진이 힘을 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불교계의 큰 관심에 힘입어 지역민의 건강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직원 식당 리모델링 이벤트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영양팀은 2달여간의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정상운동을 재개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식당 내 취사시설 및 홀 냉방기 등을 교체하고 직원들이 더욱 청결한 환경 속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식당 테이블에 설치됐던 기존 폼보드 가림막을 철거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영양팀은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도 잘 협조해준 교직원들에게 미니뷔페와 뽑기 이벤트를 준비해 감사함을 전했다. 영양팀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쓰고 있는 교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전 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인플루엔자의 가을철 유행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직원은 감염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감염이 되면 환자와 주변에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감염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 접종을 진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는 그 유행 시기를 고려해 10월부터 12월로 예방접종 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가 70~90%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는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원객 편의를 위한 공간 ‘수유실’ 오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병원을 방문하는 수유 모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 1층 로비에 수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은 고객만족 서비스 일환으로 병원이용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수유에 어려움을 겪던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유공간을 확충했다. 새롭게 마련된 수유실에는 냉난방 설비와 소파, 기저귀 교환 침대,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다.

